

유럽

○ 러시아, 탈레반 테러리스트 지위 해제 예정

- 10.5 언론은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특사 「자미르 카물로프」가 탈레반에 대한 테러단체 지정을 해제할 예정이며, 서방국가들에게 탈레반 대상 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

※ 러시아에서 테러단체 지정을 해제하였으나 UN, 미국 등에서는 탈레반을 테러단체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同 단체의 향후 활동 주의 필요

○ 영국, 自國 대상 러시아·이란의 대혼란 작전계획 등 음모 적발

- 10.9 영국 MI5(정보국) 국장은 러시아 정보 당국이 영국 거리에서 대혼란을 일으키려는 작전을 벌이고 있으며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음모도 다수 적발됐다고 발표

※ 또한, 영국에 대한 다른 국가의 스파이 활동이 지난 1년간 48% 급증했으며 알카에다와 이슬람국가(ISIS)의 위협이 다시 악화하고 있다고 부언

중 동

○ 예멘 반군,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드론 공격

- 10.3 언론은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무인기(드론) 공격을 감행했다며 후티는 전날에도 “이스라엘 깊은 곳 군사 주둔지들을 향해 쿠드스-5 로켓을 발사했다”고 보도

※ 이란이 피살된 헤즈볼라 수장 「하산 나스랄라」 등의 죽음에 대한 보복을 천명하여 후티도 군사 대응 강도를 계속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언

○ 이스라엘, 가자지구에 모스크 및 학교에 대한 공습

- 10.6 언론은 가자지구 전쟁 1년을 하루 앞둔 지난 6일까지 계속해서 가자지구에 공습을 가했으며, 이스라엘군은 학교와 모스크에 있는 지휘통제 센터에서 활동하던 “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을 정밀 타격했다”고 보도

※ 헤즈볼라 후계자로 거론되던 「하심 사피에딘」은 4일 이스라엘군이 그를 표적으로 베이루트 공항 인근을 공습한 이후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부언

○ 이스라엘, 남부에서 총격 사건으로 현지 경찰 1명 사망

- 10.7 언론은 이스라엘 남부 베에르세바에서 총격이 벌어져 국경 경찰인 「쉬라 수슬릭」이 사망하였으며, 현장에서 사살된 용의자는 베두인족 마을 출신의 이스라엘인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

※ 언론은 용의자가 2015년 베에르세바 버스정류장 내부에서 총격 테러를 감행했던 용의자 친척이며, 당국은 해당 사건의 테러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부언

○ 사우디, 온라인 상 극단주의 콘텐츠 및 채널 삭제

- 10.7 언론은 사우디 에티달(Etidal)센터와 텔레그램이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한 공동 노력으로 ISIS, 알카에다 등 온라인 선전물 및 채널 약 1억 2,900만 개를 삭제 조치했다고 보도

※ 국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4년 6월까지 불법금융, 불법무기류 등 법령 위반 신고 23,327건 중 약 84%의 게시물을 삭제 또는 접속 차단하였다고 발표

아 · 태평양

○ 北, “자금세탁방지기구, 옹서버 박탈에 반발

Anti-Money Laundering Asia/Pacific Group

- 10.3 北은 지난달 APG 제26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옹서버 지위를 박탈당한 것과 관련해 비난하며 2011년부터 ‘대응조치 대상국’으로 지정해 금융거래를 일체 금지한 것에 불만을 토로했다 보도

※ APG는 아태 지역 각국의 자금세탁 방지, 테러자금조달 금지 및 확산 금융 대응을 위한 국제 기준 이행 촉진,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1997년 설립된 자금세탁 방지기구(FATF)의 지역 기구 Financial Action Task Force

○ 韓, 북한 쓰레기 풍선 피해 막는 ‘공중 수거용 무인 드론’ 개발 예정

- 10.8 언론은 방산업체와 학계, 연구단체들이 북한 쓰레기 풍선을 막기 위한 멀티콥터와 수직이착륙기 2종의 ‘공중 수거용 무인기(드론)’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보도

※ 북한 쓰레기 풍선이 날아오면 드론 편대를 투입, 생화학무기 가능성을 사전에 탐지하고 그대로 공중에서 수거해 폐기하는 방식이라 부언

이스라엘, 북부 항구도시 식당 자살 폭탄테러

- '03.10.4. 14:15경 이스라엘 북부 항구도시 하이파의 한 해변가 식당에서 자살 폭탄테러로 19명 사망·55명 부상
 - 팔레스타인 여성 테러범 「하나디 자라다트」는 식당 입구에서 보안요원을 살해한 뒤 내부로 들어가 자폭테러 자행
 - * 同人은 요르단강 서안 출신으로 오빠가 이스라엘軍에 의해 사망하자 테러 감행
 - 팔레스타인 급진 저항운동 단체 '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(PIJ)'가 사건 직후 同 테러의 배후를 자처
 - PIJ는 '이스라엘의 점령으로 매일같이 자행되는 일상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팔레스타인측의 당연한 응징'이라고 주장
 - 한편, 이스라엘은 '무자비한 보복이 단행될 것'이라고 경고하였으며, 팔레스타인 해방기구(PLO) 지도부도 무고한 민간인을 살해하는 것은 '추악한 공격'이라며 자폭테러를 강력히 규탄
- ⇒ 최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군사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 만큼, 관련 역내 사건 발생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 강화 필요

테러 상식

Weekly Terrorism Trends

<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(PIJ) >

- (목표) 팔레스타인內 이스라엘 축출 및 이슬람국가 건설
- (이념) 아랍민족주의, 이슬람 원리주의
- (조직규모) 약 1,000명
- (주요인물) 지도자 : 「지야드 알 나칼라」 / 정신적 지도자 : 「압드 알 아지즈 아우다」
- (활동수법) 이스라엘군 및 주민 대상 로켓 공격, 인질 납치
- (생성배경) '무슬림 형제단'內 팔레스타인 유학생 중심의 강경세력이 이란 혁명에 자극을 받아 '아랍권이 팔레스타인의 지도부가 對이스라엘 무장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'에 불만을 품고 결성